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작 선정

온라인 공모전 대상·금상·은상·동상·입선 수상자 469명 발표

군산시는 가천문화재단(설립자 이길여, 이사장 윤성태)이 제7회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 온라인 공모전 수상자 469명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가천재단이 주최하고 전라북도·군산시·군산시의회·군산교육지원청·가천대학교 후원, 가천문화재단·가천대길병원·군산대야초등학교 총동문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작년에 이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공모전으로 진행됐다.

‘박애·봉사·애국’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 전국에서 4,700여 명의 많은 학생들이 참가해 그림 실력을 뽐냈다. 이번 대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각 부문별(유·초·중·고)로 그림을 펼쳐놓고, 대학교 미대 교수와 미술 작가 등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견교회를 통해 대상부터 입선까지 수상작을 선정했다.

각 부문별 대상으로는 ▲고등부-이아름(군산, 영광여고 2) ▲중등부-황지유(군산, 동산중 3) ▲초등부-최윤아(군산, 용문초 2), 권준서(경주, 유림초 4), 이서운(군산, 서해초 5), 김소리(부안, 부안동초 3), 김리하(군산, 경포초 1) ▲



고등부 대상 이아름(군산, 영광여고 2)

유아부-남지윤(구미, 계명유치원), 신조이(군

산, 예림미술교습소) 등이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총평을 통해 “해를 거듭할수록 뛰어난 작품이 많아 고민이 된다. 아이들의 기발한 상상력과 그것을 화폭에 담아낸 참신한 기법에 놀라게 된다”고 심사평을 남겼다.

수상한 학생들에게는 상징과 가천문화재단이 제공하는 기념품 그리고 수상작들을 엮은 작품집이 함께 제공되며, 별도의 시상식은 없다.

각 부문별 수상자 명단은 가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gachon.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전북지역 일대와 수도권에서 특별전시회를 갖고 군산시와 교류하는 해외도시에서도 순회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는 전북 군산 출신인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이 2014년 모교 대야초등학교에 국내 최대 수준의 '가천이길 여도서관'을 건립·기증한 것을 기념해 2015년부터 개최됐다. 매년 군산은파호수공원에 학생과 가족 등 1만여 명이 참가하는 가족 축제로 자리잡았으며, 작년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공모전으로 진행하고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신나는 오광대놀이 한마당 완주서 열린다

15일 문화예술회관서 '춤의 고을 고성사람들' 공연

전통공연예술의 신명과 생동감, 깊이와 품격을 잘 녹여낸 <춤의 고을 고성사람들>이 완주를 찾아온다.

7일 완주군(군수 박성일)은 오는 15일 오후 7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춤의 고을 고성사람들> 공연을 한다고 밝혔다.

오광대놀이 읽어주기, 보여주기, 소통하기라는 큰 주제 하에 탈을 벗고 명무 전 형태의 공연을 펼치고 오광대놀이 전문해설사의 참여와 해설로 지역민과 연계한 신나는 오광대놀이 한마당을 만든다.

고성 오광대의 연극 속 춤의 미학을 대중들이 쉽게 느낄 수 있도록 관객에게 다가가는 공연이다.

일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21년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 공모·선정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478석에서 230석으로 객석을 축소 공연할



계획이며 무료로 관람 할 수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다양한 지역예술인 전시 개최로 시민·관광객 '호응'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지역작가들의 참여로 이뤄지는 다양한 전시개최를 통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박물관 시민갤러리는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류지정 캘리그래피를 시작으로 카멜루 회화전, 손성욱 사진전, 이정경 한지공예전, 안상상 공예전, 조인호 서예전, 그림·인 서양화전, 홍삼식 개인전 <심화전, 마음속에 자연을 그리다>展 등 다양한 전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는 전시공간과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며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예술인들의 폭넓은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장미갤러리는 故해반영 화백의 상설전과 군산 출신 중견작가인 군산 일요화가회 <자연전>, 채수영 화백의 유화작품전 <두 피사체의 오버랩>, 강경숙 개인전 <“o”(이음), 전덕희 개인전 <양춘화담>, 배수정 개인전 <아프리카 그림일기>, 김윤임 작가의 <소풍가는 길>, 리랑 최주희 민화작가의 <바라는대로 이루어진다>, 신동일 서양화가의 <소소한 행복> 전시가 개최됐다.

근대미술관은 연 4회 정도 타 미술관과 연계한 기획전과 군산 출신 원로작가 초대전을 개최했다.

故박중대 조각가의 특별전과 전북도립미술관과 연계한 <들, 셋, 공동체>展 개최에 이어 이

승우 작가의 회고전의 성적으로 기획됐던 초대전 <꽃살 앞의 핀 망초>, 故해반영 화백 특별전에 이어 한국화의 맥을 이은 대표적인 산수화가인 故이용휘 화백의 기증작품 및 유물을 공개하는 <숲을 노래하다> 전시가 열리는 등 군산 화단의 발전에 이바지한 예술가들이 재조명될 수 있도록 운영됐다.

박물관 관계자는 “다양한 전시개최를 통해 지역예술가와 시민이 문화적으로 교류하고, 관광객에게 우수한 지역 예술을 홍보하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면서 “지역을 알리고 지역 문화 창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전주문화재단, 온라인 문화예술정책포럼 개최

(재)전주문화재단(대표 백옥선)은 8일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1 문화예술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 다시: 예술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위드코로나 시대의 예술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 문화예술생태계의 방향성에 관한 담론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포럼은 경희대학교 박신의 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허대찬(앨리스온 편집장), 장세길(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을 통해 위드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생태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재단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지역의 문화예술생태계 현황을 살피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9월과 10

월 지역 예술인의 예술현장을 조사했다. 조사는 공연, 시작, 기획분야로 나눠 지역의 15 예술가·단체의 활동과 고민을 인터뷰 형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내용은 발제자와 토론자에게 미리 공유하여 새로운 시대의 지역의 문화예술과의 접점을 살피고자 했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정책 포럼은 위드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이 어떻게 회복돼야 하고, 어떤 가치를 두고 추진해야 할지, 이를 위해 우리의 실천 과제는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담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민도예대학 특별전 '五福百陶' 개최

남원시는 지난 3일 도예문화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문을 연 남원시민도예대학 제44기 수료식과 수강생 작품 <五福百陶>展을 개최했다.

제44기 수강생은 기초과정, 실기A/B과정, 응용과정 등 4개 과정으로, 지난 8월 16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2회, 1일 3시간 총 16주간의 교육과정으로 진행됐으며, 이번에 6명의 졸업생(응용과정)과 16명이 수료하며 총 21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남원시민도예대학은 일본 사쓰마 도자기의 명가인 심수관(제14대 심수관)가 일본에서 성장한 조선의 도자기를 남원의 도예문화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설립한 곳이다.

이번 <五福百陶>展은 32명의 심수관 후예들로 '五福은 인생의 바람직한 다섯가지 福수·



부·강녕·유호덕·고종명)을 百陶은 모든 또는 백개의 그릇에 담았다'라고 지칭하고 있다. 도예대학 전시관에서는 오는 31일까지 수강생들이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도예작품 80여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지역작가 공모전 추진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대표관광지 삼례문화예술촌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지역작가 공모전을 추진한다.

7일 완주군은 지역 내 활동하고 있는 역량 있는 작가들과 연계해 작가들의 작품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삼례문화예술촌은 정기적인 작품 전시를 통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 작가는 미술, 공예, 조각 등의 활동경력, 전시 및 운영경력 등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선정된 작가들에게는 제3전시관 전시공간과

작품에 대한 작가비, 기본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한다. 작가는 작품의 설치·운반 등을 담당한다. 전시와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작가의 경우 검토를 거쳐 정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창작자작품 전시를 희망하는 창작자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완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와 참여 작품 리스트, 참여확인서를 작성해 12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